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 효과

이영희¹⁾, 이미나²⁾

Effect of self-growth leadership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Yeong-Hee Lee¹⁾, Mi-Na Lee²⁾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자기이해 및 수용, 자기개방과 자기주장, 자기결단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아동 12명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를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비교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반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 점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성장 리더십을 통해 실험집단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첫째, 자신의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개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기술을 훈련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리더십을 실천중심으로 적용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아동, 자기성장 리더십,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growth leadership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gram consists of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opening, self-assertion, and self-determin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 children from the Multicultural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in Jeollanam-do(experimental group: 12, comparative group: 12).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elf-elastic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lf-growth leadership program showed significant self-elasticity and interpersonal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rough self-growth leadershi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experimental group first learned how to accept without shrinking in their environment, and

Received (April 15, 2020), Review Result(May 27, 2020)

Accepted(June 14, 2020), Published(June 30, 2020)

¹Time lecturer, 58530,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Chodang University 380, Muan-ro, Muan-eup, Muan-gun, Jeonnam

E-mail: lea0315@hanmail.net

²(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61027, Kwangshin University Faculty of Welfare Consultation Convergence, 36, Yangsan Residence, Buk-gu, Gwangju

E-mail: lmn4780@naver.com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their ability to adapt flexibly and flexibly to overcome their limitations improved. Second, by training skills to accept and empathize with others, problem solving abil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 was improved, and they showed an attitude of trying to form more efficient and active relationships. It can be said that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s self-growth leadership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an action-oriented one.

Key word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lf-growth leadership, leadership programs, self-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서론

한국의 다문화 이주민은 2019년 12월 기준 약 250만명에 이르며, 한국사회도 세계화 현상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내 정착이 증가되고 있어 다문화사회화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나 사회적 토론을 할 여유없이 변화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4월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1월 시행)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으로 가족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1]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유형별로 볼 때 베트남 23.4%, 중국 19.3%, 필리핀 6.2%등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에 걸쳐 생활하고 성장해 가는 아동을 의미한다[2][3]. 다문화가정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가정, 국제결혼 가정, 탈북민 가정, 국제입양 가정, 입국재외 동포 등으로 분류한다[3].

또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정책의 증가와 함께 형성된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출생자 20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아동[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수는 증가하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인식, 문화 및 언어, 교육 등의 차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5].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는 어머니의 국가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언어능력 부족과 정체성 혼란, 그리고 또래와의 다른 외모로 인한 따돌림, 편견에 의한 소외감 등,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6].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서로 다른 이중 문화 속에서 갈등과 혼동으로 성장하며 긴장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이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세대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자신의 외모와 환경에 대한 비교의식이 극대화되고 있다[8,9]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성장을 위한 전략적 측면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위축될 때 용기를 주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편견 등의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아탄력

성,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적응하려는 과정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자기성장 과정을 통해 자기내면의 자기실현 경향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전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 사람들은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자기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인식의 시작이다. 자기(self)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었다. Rogers에 따르면 자기는 개인의 경험세계로부터 분화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지각한 것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함한다. 즉 자아상이다[3]. 자기리더십이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적 전략을 일컫는 말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이끌게 하는 자기리더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0]. Manz와 Sims[11]는 자기리더십을 스스로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인지전략 및 행동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따라서 자기 성장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성숙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자기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성장이라는 방향성이 설정되고 또 그 변화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제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정체성 문제, 학습부진, 언어 문제, 따돌림 등과 심리적 어려움의 부적응 문제와 이중문화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6]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12][13]과 독해, 쓰기, 서술 능력과 학업 영역에서 낮은 성취[14]를 보인다. 또한, 학습부진으로 학교수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정서 및 과잉 행동 등의 부적응[15]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외모와 문화의 차이 등 차별과 사회적 편견, 관계 기술의 미숙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16], 따돌림[17]의 경험을 하고 있어 자신감 결여와 폐쇄적 대인관계의 양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공격적·폭력적이거나 반대로 소극적 성향의 정서문제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18]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기 자신을 오롯이 받아들이며 불안과 우울을 표현했을 때 이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이와 더불어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자기성장을 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간의 생존능력과 더불어 적응력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탄력성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삶의 힘든 역경이 개인에게 부정적 정서 및 문제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힘을 가져온다는 것과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9]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내부·외부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불안을 극복하며 사회에 긍정적 참여와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적응능력이다[20].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자기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결합하여 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 대인관계는 집단생활 속의 성원 상호간의 심리적 관계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민감한 관심으로 형성된 조직적인 관계이다. 개인이 인간관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상이 결정[21]이 된다고 하였고, 두 사람 이상 관계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된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 협력적 관계[22]를 만드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만남과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가정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요 타자를 교사와 친구로 정하고 대인관계 유형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과 개입이 있어야 효율적인 자기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 시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기주장의 의미[23]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성장을 돕고 자신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지에 대한 성공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에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효과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J도 J군 소재한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다문화가정 고학년 아동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2명(자아성장 리더십프로그램)과 통제집단 12명(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익명으로 본 연구에 활용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자들의 부모님께 동의를 얻어 실험집단을 구성하였다. 통제집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과 학년별 구성은 실험집단의 성별(남:4명, 여:8명)과 학년(4학년:2명, 5학년:5명, 6학년:5명)이다. 통제집단의 성별(남:6명, 여:6명)과 학년(4학년:2명, 5학년:6명, 6학년:4명)이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2.2.1.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는 Atsushi & Hitoshi, Shinji와 Motoyuki(2002)[24]가 개발하여 민동일(2007)[25]이 수정·번안한 도구하고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7문항), 감정조절(8문항), 긍정적 미래 지향성(6문항)의 하위요인이며 총 21개 문항이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전체 Cronbacha는 .81이며, 각 요인별 Cronbacha계수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91, 감정조절 .90, 긍정적 미래지향성 .88로 나타났다.

2.2.2. 대인관계 척도

대인관계 측정을 Schlien과 Guerney(1971)[26]가 개발한 '관계성 변화 척도'를 문선모(1980)[27]가 번안하고 이영희(2020)[28]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3문항), 신뢰감(3문항), 민감성(2문항), 이해성(4문항)이며 총 16개 문항이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a는 .89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Cronbacha계수는 만족감 .90, 의사소통 .92, 신뢰감 .93, 민감성 .93, 이해성 .90으로 나타났다.

2.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Window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a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의 측정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2019년 9월 10일에서 11월20일까지 주1회 총10회기를 진행하였으며, 회기 별 진행시간은 60분이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시작단계(1회기~4회기), 준비단계(5회기~6회기), 작업단계(7회기~9회기), 종결단계(10회기)로 진행하였다.

3.1. 프로그램 구성요소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Table 1]과 다음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세부내용

[Table 1] Program Details

회기	주제	회기목표	활동내용	리더십 요소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프로그램 목적 이해하기 ·자기소개를 통한 집단의 신뢰감을 형성한다.	·서약서 작성 ·별칭 짓기(어머니나라 말) ·명찰꾸미기 ·너와 나의 인터뷰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친밀한 만남
2	나는 이런 마음 이에 요!	·현재의 감정 인식하고 이 해한다. ·자기표현의 자신감향상과 친 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 는 경청 기술 습득한다.	「나의 뇌 이야기」 ·감정 빙고게임 ·나의마음 지수온도계 「마음에 들고 싶어요」 ·나의 오랜 습관 찾기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자기 관찰
3	내가 속한 지구촌!	·어머니 문화의 정보와 이중 문화 긍정적 인식가지기. ·자신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 찾아 모델링하기. ·다문화 가정의 강점 찾기	「롤 모델을 찾아서」, 「모델 현민」 영상 ·나라 별 훌륭한 인물 ·나의 소중한 보물찾기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자기 관찰
4	내 마음의 블랙 홀!	·이중문화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구분한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 등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감정은'나'라는 바다에 이는 파도」 ·감정 스피드 게임 ·자신의 긍정·부정성 경험나누기 ·I-Message 감정표현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자기 통제
5	너와나 마음 지키 기!	·허물없는 말이나 놀리는 말 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 ·자신의 대처방식을 인식, 적 절한 태도 및 방법을 익히기.	「대인관계 갈등 상황 문제해결」 서로 이럴 때는 (상황극) -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문제 해결
6	나는 할 수 있다!	·자부심 가지기.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생 각하게 하고 다짐해보기.	「피그말리온 효과」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모든 것 작성하 기 ·부정적·긍정적 대화 비교하기 ·자성예언 작성하기 ·'난 할 수 있어!(어머니 나라 말)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자성 예언
7	나의 소중한 시간 지키기!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 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한 다.	「하루86400원이야기」 「성공하는 사람 들 7가지 법칙」의 소중한 것 찾기 ·시간관리 개념 이해 ·시간 매트릭스 작성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시간 관리
8	성공을 위한 나의 마음가 짐!	·성공을 위한 태도와 노력의 중요성 인식하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 ·자신의 습관을 버리고 자신	「도도새」 영상 「윤용원 선수 태도」 ·삶의태도 중요성알기 ·나의 중요한 가치발견하기	사고 전략

		의 가치를 찾게 한다. ·자신의 지지자원을 찾게 한다.	「나와 연결된 사람들」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9	행복한 미래의 나!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계획의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성공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나의 성공 설계」 ·원하는 나의 모습 ·생애 목표 세우기 「나의 명함 만들기」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미래 설계
10	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생애설계를 할 수 있다. ·소감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마무리 한다.	실천의지 다지기 내 마음의 보물 상자(행복담기) ·나에게 칭찬해요!(마법의 힘 칭찬) ·서로를 칭찬해요! ·감정얼굴 느낌나누기	자기 보상

1회기~4회기는 자기성장 구성요소인 '자기이해와 자기수용단계'이며, 5회기~6회기는 '자기개방 및 자기주장 단계'이다. 7회기~10회기는 '자기결단단계'이다. 다음으로 자기성장의 구성요소에 전략측면으로 개입된 자기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회기~4회기는 '자기관찰, 자기통제'가 전략적 측면으로 개입되어 있으며, 5회기~7회기는 '문제해결, 긍정예언'이 8회기~10회기는 '시간관리, 사고전략, 미래설계, 자기보상'이 자기성장의 전략적 측면으로 자기리더십 구성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3.2.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소개와 친밀감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2회기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자기이해 단계로 자신의 오랜 습관을 확인하고 평가를 하였다. 3회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어머니'나라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활용하여 이중문화의 긍정적 인식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28,29]. 4회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계 갈등을 경험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I- Message로 자기표현하기'의 의사소통 기법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5회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역할극으로 자신의 오랜 대처방법을 인식하게 하여 적절한 태도와 방법을 익히도록 도왔다. 6회기는 '어머니'나라의 언어로 긍정적 자기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성예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신을 개방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도왔다. 7회기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8회기는 장애물(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승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사고전략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변화를 시도하도록 지지하였다[30]. 9회기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31],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32]. 10회기는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로 자신의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지며 자기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 모두가 먼저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으로 참여자들 서로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인간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여 부정적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긍정적 삶에 대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4. 연구결과

4.1.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대한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결과이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표 2] 자아탄력성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measurement period for self-elasticity

하위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3.25(.72)	2.86(.59)	3.05(.67)	3.83(.068)	2.73(.58)	3.28(.63)
감정조절	2.78(.65)	2.38(.59)	2.58(.64)	3.65(.51)	2.26(.36)	2.95(.83)
긍정적 미래 지향성	3.28(.58)	3.46(.38)	3.37(.49)	4.53(.35)	3.15(.29)	3.84(.77)

[Table 2]와 같이 자아탄력성 척도의 중간 값인 3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위영역 간에 비교를 했을 때 긍정적 미래 지향성이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결과 공분산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었다.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측정시기의 Wilks의 람다값이 .143이고 $p < .001$ 수준에서 측정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Wilks의 람다값이 .095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Wilks의 람다값이 .236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크기 η

2은 .764로 높은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33].

[표 3] 자아탄력성의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 결과

[Table 3] Self-elasticity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ment analysis results

변인	Wilks의 랏다	F	P	η^2
측정시기	.143	39.856	.000	.856
집단	.095	63.866	.000	.905
측정시기 X 집단	.236	21.607	.000	.764

4.2.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한 결과이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nterpersonal ability

하위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M(SD)	M(SD)	M(SD)	M(SD)	M(SD)	M(SD)
만족감	3.25(.67)	2.67(.46)	2.96(.64)	4.52(.41)	2.56(.48)	3.54(1.09)
의사소통	2.97(.46)	2.50(.39)	2.74(.48)	3.94(.47)	2.39(.34)	3.17(.89)
신뢰감	3.11(.56)	3.00(.47)	3.06(.51)	4.00(.49)	2.83(.36)	3.42(.73)
민감성	2.88(.83)	2.29(.45)	2.58(.72)	3.79(.84)	2.25(.40)	3.02(1.02)
이해성	3.08(.69)	2.75(.43)	2.92(.58)	4.20(.47)	2.67(.27)	3.44(.87)

[Table 4]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결과 공분산 행렬이 동질적임을 가정할 수 있었다.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5>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측정시기의 Wilks의 랏다값이 .158 이고 $p < .001$ 수준에서 측정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Wilks의 랏다값이 .126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Wilks의 랏다값이 .126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크기 η^2 은 .8744로 높은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33].

[표 5] 대인관계능력의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 결과

[Table 5]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ment analysis results of interpersonal skills

변인	Wilks의 랏다	F	P	η^2
측정시기	.158	19.128	.000	.842
집단	.126	24.974	.000	.874
측정시기 X 집단	.126	24.990	.000	.874

5. 논의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성장과 리더십이 증진되고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및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인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 및 대인관계 역량의 구성 요소와 자기실현, 그리고 자기성장의 방향성을 위한 전략적 제시인 리더십의 요소들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였다.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향상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소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 모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탄력성보다 향상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 참여자들의 감정조절이 잘 되었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자기결단이 추가됨으로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개방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기존의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효과 검증 연구가 아직은 미비하여 비교 분석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자아탄력성의 개념적 이론을 적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의 인내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조절 능력이 높아 낮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34].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대인관계능력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이해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성장 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대인관계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자기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던 [35][36]의 연구와 우울 성향을 가진 초등학생의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던 [37]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외국인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와 문화수용을 위해 프로그램의 활동을 구성하였고, 어머니 나라의 말과 국기, 위인들을 어머니에게 정보를 얻도록 하여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과 어머니 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 나라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나라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안함으로써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 실시의 대상인 다문화가정 아동만이 아닌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각 대상과 연령별 확대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하여 시도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것으로 단기간 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자기성장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의 삶 속에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1] <http://www.mogef.go.kr/> (2018). Multicultural Family Survey.
- [2] G H Yoon, I S Jang, (2015). An Exploratory Study for Prediction of Misconduct Risk in Multicultural Families. Wonkwang University Police Studies Dissertation. 10(1). 147-178.
- [3] Y S Song et al(2019). Consultation with multicultural family welfare. Seoul: Community publisher.
- [4] <http://www.kostat.go.kr/> (2019). Demographic data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immigrants.
- [5] C Y Kim(2014).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al Purifica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6] H W Kim(2010).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Seoul: Hakjisa.
- [7] M J Kim(2010). A study of learner variable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elf-leadership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8] J H Lee, 2010; The effect of rea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on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in multicultural families.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 [9] J L Gaek(2013).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emotion-oriented treatmen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loring the factors causing change.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 [10] H J Kim(2007).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on the adaptation of one parent's home child to school lif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1] N G Kim(2006).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s on elementary students' psychosocial adaptive abilit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12] H J Lee,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exercise on the expression langu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13] S S Moon (2012).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 [14] G S Kim, H S ah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married women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127-144.
- [15] H W Bae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bout self-identity confusion, poor learning, and maladjustment of school life.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16] Y J Shin (2017).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i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ident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7] Y J Shin, C Y Yoo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daptation, peer relations and bicultural accepta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lay Therapy Research*, 14(2), 1-14.
- [18] G Y Park et al (2013).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icidal thought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2012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7(1). 155-165.
- [19] Lazarus. (2000). *Ajust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20] H S Kim (2008). The effect of children's social networks on competency perception and self-elastic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 [21] W S Kim (2014). Developing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of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2] J H Wang (2004). The effect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argeted at the defected youth.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 [23] H D Lee, J D Kim, (1982). A study on rural family migration. *Rural economy* 5(1). 55-66.
- [24] Atsushi, O., Hitoshi, N ,Shinji, N., & Motoyuki, K.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of Counseling Science*.35, 57-65.
- [25] D L Min (2007). The effect of adolescents' home health, school health, and self-elasticity on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6] Schlein, Guerney. (1977).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27]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on human relations training. *Journal of Sangmyung University*, 19, 195-204.
- [28] Y H Lee (202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self-growth leadership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 [29] J S Kim (2019). The effect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 [30] H Y Hong, M J Kim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rength and happiness. *Youth facility environment*. 9(4). 85-95.
- [31] B H Kim et al(2006). *School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 [32] Linley, P. A., & Joseph, S. (2006).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 17(1). 1-21.
- [33] Cohen, S. (1992). What makes teams work: Group effectiveness research from the shop floor to the executive suite. *Journal of Management*, 23(3), 239-290.
- [34] J W Go (2012). The effect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lasticit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ability improvement of college freshmen, Hoseo University, master's thesis.
- [35] B H Kim (2005).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programs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 [36] E S Oh, (2010).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Focusing on Expert Recognition through Delphi Research.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3(2). 37-69